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조례 입법예고

교육인권센터 설치·운영 등 담겨
도교육청, 내달 12일까지 의견서 받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맘(Mom)riendly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전주와 익산, 군산에서 총 4차례 운영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초·중·고교 입학생 학부모 65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아이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부모의 역할과 그 책무성을 알리는 한편, 교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갈등

리구제 등 총 4장 25조와 부칙으로 구성됐다. 특히 제6조 인권실태조사, 제7조 인권 모니터링, 제9조 전북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 설치·운영, 제13조 전라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 설치, 제24조 구제신청 및 조치, 제25조 조사 등이 담겼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전북도교육청 인권위원회, 제4장 인권보호와 권

가 실질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 교육청은 전북도교육청이 유일하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이나 개인은 오는 3월 12일까지 찬반 여부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전문가 회의와 법제처 검토를 거쳐 '전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을 확정, 입법예고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4월 중 전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교육인권센터, 학생인권센터 역할 포괄할 수 있어야”

전북교총, 교육인권 증진 기본 조례 제정 ‘찬성’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종)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제정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함께 존중하고자 노력하는 전북도교육청의 시도를 더욱 진보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교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회적 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학생인권조례 등의 역할로 학생 인권을 보호해 과거의 체벌 등 반인륜적, 반교육적 행위는 학교에서 사라졌다. 여전히 학생의 권

리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가치다. 특히 전북교육인권센터는 교사,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까지 그 인권 존중의 범위를 확장해 부교육감 직속으로 운영한다. 기존 학생인권센터는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산하에 있어 센터장·과장·교육국장의 결재라인이었다면,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센터장·부교육감의 결재구조를 가지며, 보다 독립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반면 교육인권센터는 교권신장, 학습권보호, 학교 구성원 간 갈등 해소 등 현재 산적한 학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존 학생인권센터의 역할을 포함해 교사, 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충분한 인력 배치를 강조했다. 끝으로 전북교총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교권보장', '교육방임현상' 등으로 무너진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조례 제정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0일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밤에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영선 교수가, 토론자로는 영경영 전 전북도청 인권담당관, 오준영 전북교총 정책위원장, 노정환 국민권익위원회 지역인권증진팀장, 김영근 전공보 사무국장, 채민 전북평화외인권연대 상임활동가 등이 참여했다. /정은성 기자

“지역관광산업 발전으로 지방 소멸 위기 탈출”

우석대, 무주 적상면서
지역관광 활성화 심포지엄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지난 18일 무주군 적상면 오색단풍도서관에서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인적자원의 필요성과 인재개발 방안 등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두업 호남문화관광연구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최길현 한국사회적기업학회 수석부회장이 기조강연에 나섰다. 최길현 수석부회장은 “관광산업은 시대변화와 트렌드에 민감한 산업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관광 대상과 상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며 “전북의 경우 청년들의 유출 현상이 심각해 새로운 관광 인적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태규(관광학과) 교수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新 인적자원 개



국립군산대학교의 지역맞춤형 전기차 클러스터 전문인력양성사업단은 지난 16일 군산대학교 이노테크홀에서 '성과보고회 및 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발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전북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무주군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중앙권 관광민화도 특별 화위프로그램'을 제안하기도 했다. 황 교수는 “지역의 중장년을 관광 인재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관광 현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현장 중심의 관광 교육과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국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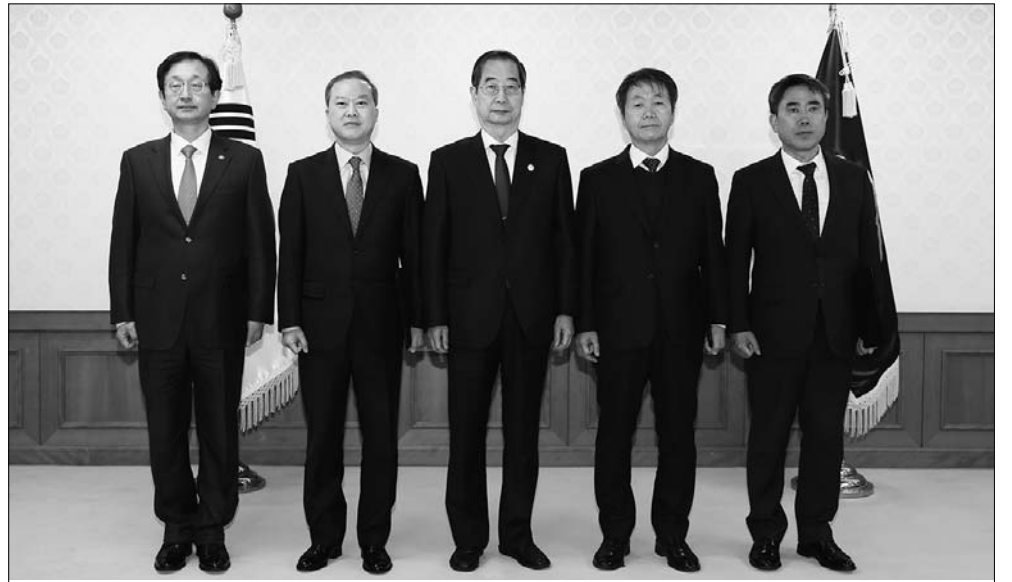
사례연구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관광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지역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송영식 지역혁신가는 “지방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역관광산업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초·중 입학생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맘(Mom)riendly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전주와 익산, 군산에서 총 4차례 운영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초·중·고교 입학생 학부모 65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아이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부모의 역할과 그 책무성을 알리는 한편, 교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갈등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연극 관람과 학교 현장 교원의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통해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대정초 강주는 교사가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생 생활 길라잡이'를 주제로, 샘고을중 김현갑 교장이 '학교폭력 예방의 첫걸음, 부모의 관심'을 주제로 각각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준다. 아울러 전북도교육청 학교폭력조정지원단의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가

알릴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전주는 20~21일 한국전통문화전당 2층 공연장에서, 익산은 22일 송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군산은 24일 군산청소년수련원 대강당에서 각각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 된다.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정성환 과장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학교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기 위해 학부모 교육을 마련했다”면서 “학교와 가정이 함께 학생의 바른 인성 함양을 지원해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양오봉 전북대학교 신임 총장이 20일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임명장을 전수받은 후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승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양오봉 전북대 총장 공식 임기 시작

양 총장, 추후 취임식 통해 대학 경영 청사진 밝힐 듯
재정 확보·JBNU 지역연구원 설립 등 공약 내걸어

양오봉 제19대 전북대학교 총장이 20일 17일자로 4년간의 공식 임무에 돌입했다. 20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총장 임명안이 심의·의결된 이후, 20일 국무총리로부터 대통령 임명장을 받았다. 이에 양 총장은 임기 첫 날 내부 업무보고 등을 받고, 신임 부처장단을 꾸리는 등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대학 경영에 대한 청사진은 추후 취임식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미래를 이끄는 전북대, 글로벌 Top 100'을 슬로건으로 내건 양 총장은 대학회계 2,000억원, 연구비 2,500억 원 확보와 발전기금 500억

원 달성 등을 통해 낙후한 대학 재정을 마련하고, 취업부총장제 신설을 통한 취업률을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특히 지역과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전북 14개 시군의 발전을 견인할 'JBNU 지역연구원'을 설립하고, RIS와 같은 대형사업 유치 및 공동 업무보고 등을 받고, 신임 부처장단을 꾸리는 등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대학 경영에 대한 청사진은 추후 취임식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미래를 이끄는 전북대, 글로벌 Top 100'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며

“준비된 세일즈 총장으로 뛰고 또 뛰며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JBNU Rise'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오봉 총장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총리산하 새만금위원회 토지개발분과위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문위원, 전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 정부 정책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더불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140편의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고, 38건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등 에너지 분야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력도 보유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내달부터 '토요가족체험' 운영

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원장 박순정)은 3월부터 12월까지 2023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토요가족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익산 본원에서는 실내 체험으로 3월 18일부터 매월 첫째·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하고, 석교 본원에서는 실외체험으로 3월 25일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에 실시한다.

참여 대상은 전라북도에서 거주하는 3~5세 유아를 동반한 가족으로 한 가족당 최대 4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2시간이다.

신청은 본원 1기(2월 21~22일), 2기(5월 16~17일), 3기(8월 8~9일), 분원 1기(2월 23~24일), 2기(5월 18~19일), 3기(8월 10~11일) 각 3회다. 매기마다 신청할 수 있고 1년에 3회까지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누리집(<https://office.jbnu.kr/b-i>) 학부모지원(토요가족체험)에서 실내체험(본원), 실외체험(분원) 중 선택해서 신청하면 된다.

본원의 실내체험은 △슬기꿈터 △나래꿈터 △튼튼꿈터 △행복꿈터 △자율체험 등 5가지 체험코스가 있으며, 본원의 실외체험은 △하늘마당 △흙마당 △숲마당 △소나무마당 △모래마당 △자람숲마당 △산책마당 등으로 6가지 마당으로 구성됐다.

박순정 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토요가족체험을 실시하는데,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많은 가족들이 와서 자녀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기 바란다”며 “유아들의 꿈을 키우는 유아중심 미래교육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식물방역대학원이 지난 18일 경북대학교에서 2023학년도 식물방역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본격적인 인재양성에 나섰다.

전북대 식물방역대학원 인재양성 본격

경북대서 제2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열어

전북대학교 식물방역대학원(원장 백승우)이 지난 18일 경북대학교에서 2023학년도 식물방역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본격적인 인재양성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식물방역대학원은 농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의 예방, 검역, 방제 등의 현장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북대, 경북대, 전남대 3개 대학 컨소시엄으로 설립된 특수대학원이다. 올해 2기 신입생을 맞았다.

이날 열린 오리엔테이션에는 전북대와 전남대, 경북대 등 3개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 60명이 참석, 경북대 최경숙 학장 및 각 대학별 전공교수 인사를 시작으로 학교 소개 및 학사일정

안내 등이 이어졌다. 이어 신입생-재학생과의 대화 등 선·후배 간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전북대 식물방역대학원은 올해 10명의 신입생이 관련 분야 맞춤형 교육을 받는다.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업기술센터 등 국공립연구기관, 그리고 이의 산업체 재직자 등으로 구성됐다.

이러저 농식품기술융합형인재양성사업 단장은 “2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글로벌 식물방역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병해충 관리 및 검역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잘 갖춰 경쟁력 있는 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한일 대학생 공정무역포럼 공동 개최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7일 제3회 한일대학생 공정무역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NPO법인 동아시아 공생문화센터의 후원으로 전주대, 대전대, 성공회대, 일본 구마모토기쿠엔대학, 시모노세키시립대학, 사가대학 등이 함께했다.

이날 한국과 일본의 공정무역 전문가, 교수, 학생 30여 명이 참여했다. 일본에서는 공정무역학생네트워크(FTSN)규슈 교류회가 오프라인으로 열리고, 한일포럼은 온라인으로 진행

됐다. 전주대는 게임콘텐츠학과 주 전공에 사회경제적 융합전공 순진기 학생, 사회복지학과 주 전공에 사회경제 융합전공 김민경 학생이 발표했다.

공정무역대학 활동을 추진하며 포럼 기획에 참여한 허문경 연구교수는 “혜를 거듭할수록 발표내용도 풍부해져서 한국과 일본의 사례뿐만 아니라 태국, 캐나다의 사례도 발표했다”며 “학생들이 지극을 받아 시야가 넓어진 것 같고, 준비도 열심히 해서 흥미로운 포럼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